

특별기고



정기연 주필

말의 향기

게 전하는 말씀이 있는데 같은 말이라도 상냥스럽고 정겹게 하는 말과 통명스럽고 듣기에 거북하게 하는 말투가 있다. 말씀은 말의 존댓말이기도 하다.

어렸을 때 들은 말이 씨가 돼 성공하기도 하고 반대로 불행하게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말은 씨가 되므로 부모와 교육자는 자녀와 학생들에게 심사숙고해서 잘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말씀을 해야 하며 함부로 실패할 거라는 부정적인 말씀을 해서는 안 된다.

칭찬하는 말씀은 그것이 씨가 돼 성공하게 한다. 공부를 잘못하는 학생이지만, 항상 선생님은 꾸준하는 것이 아니라, "잘 할 수 있을 거야, 좀 더 노력해 보자"하고 말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으나 "너는 어찌 그리 미련하냐. 남들은 잘하는데" 하며 비교하는 말로 꾸준하면 열등감이 씨가 돼 공부를 더 못하게 된다.

졸업식 날 가정이 가난해 진학을 못 하는 학생에게 "너는 꼭 성공할 거야, 나는 네가 성공할 것으로 믿는다."라는 담임 교사의 정겨운 격려의 말씀은 씨가 돼 학생의 마음속에 각인이 되고 그것이 성공의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임 만금(전 담양동 교장)은 2014년 2월 말 정년퇴임 했다. 2013년 1월 6일 방학 중에 학교 근무하는 교장실을 노크하고 들어온 젊은 신사 한 분이 있었다. "임 만금 선생님! 저 이 성화가 성공해서 41년 만에

찾아와 인사드립니다."하고 큰절하는 젊은이는 41년 전, 임 교장이 초 임지 영광 백수 북 초등학교에서 6학년 때 담임한 제자였다. 이 성화는 담임교사의 "성화는 꼭 성공할 거야"라는 말이 씨가 되고 각인이 돼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해 고학으로 공부하고 연구해 벤처기업으로 성공해 부자 사장이 돼 담임 교사에게 선물로 그랜저 자동차와 1천만 원을 전달한 미담이 있다. 그러므로 교사가 학생에게 하는 말은 씨가 돼 성공하게 하는 말씀을 해야 한다.

말에는 "복(福)이 되는 말, 독(毒)이 되는 말"이 있다. 우리가 수없이 내뱉는 말에는 사람을 살리는 말도 있지만 죽이는 말도 많다. 같은 말인데도 누구는 복이 되는 말을 하고, 누구는 독이 되는 말을 한다. 말하는 말의 세 부류가 있다. 말씨, 말씀, 말투가 그것이다. 씨를 뿌리는 사람(말씨), 기분 좋게 전하는 사람(말씀), 말을 던지는 사람(말투)이 있는 것처럼 말에도 등급이 있다. 말씀은 말과 다르다.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하는 경우가 있다.

이같이 감동을 전하는 사람의 말을 말씀이라 한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이나 불경에 기록된 부처님의 말씀은 감동을 주고 변화를 주는 말씀이다. 교회 성당 사찰에서는 목사 신부 주지승이 말씀을 전하고 있고 신도들은

그 말씀을 들으러 간다.

말로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도 있다. 초등생 어린이에게 "씩씩하고 멋지구나. 넌 장군감이다." "넌 말을 잘하니 변호사가 되겠구나." 이렇듯 말에 복을 담는 습관이 필요하다. 좋은 언어 습관은 말씨를 잘 뿌리는 것에서 시작된다.

전철에서 중년 여인이 경로석에 앉은 할머니에게 말을 건넨다. "어쩔 그렇게 곱게 늙으셨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시큰둥한 표정이다, 다음 역에서 중년 여인이 내리기 무섭게 "그냥 고우시네요. 하면 좋잖아. 늙은 거 누가 몰라." 말이란 뒤을수록 빛나고 향기가 난다. 말할 때도 역지사지(易地思之)가 필요하며 말을 나눌 때는 상대방의 입장을 늘 염두에 두고 해서 실언이나 허언 같은 말실수를 안 해야 한다.

말은 자기의 목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상대방이 듣기 좋은 소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 너무 소리가 커도 안되며 작아도 안 된다. 분위기에 따라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는 크기로 항상 고운 목소리가 나오도록 노력해서 말을 해야 하며 그것이 습관화돼야 한다. 통명스럽고 듣기 거북한 말소리(말투)가 안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의 생각은 말로 표현하는데 그것이 좋은 말씨가 되고 감동을 주는 말씀이 되고 듣기 좋은 말의 향기가 풍기도록 노력해서 말을 해야 한다.

독자기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이 병 목

광주서부소방서 현장대응단장

요즘 우리들의 삶은 남을 생각하는 마음들이 너무 부족해 뭐든지 자기만 좋아야 한다는 식으로 살아가면서 상대방 생각은 하지 않고 생활하지만 본인보다 못한 사람을 생각하면 쉽게 개인의 생각이 바뀔 것이다.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남들도 나와 같다고 생각하는 때가 많다.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면 남들도 다 좋아 하겠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히 옳은 것이지 하고 내 뜻대로 말과 행동을 하는 때가 많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다 바꾸어 말하면 내 말과 행동이 남을 괴롭게 하는 때가 있고 남이 어떻게 생각하고 무슨 괴로움을 당하거나 기분 나빠 하는지도 모르고 나 좋은 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즉 남을 의식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한 것이다.

모두가 남의 개성을 무시하고 남에게 의도적으로 피해를 주려는 행동, 특히 상대방의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조금씩 양보 한다면 화합하지 못 할일이 없는 말씨가 되고 감동을 주는 말씀이 되고 듣기 좋은 말의 향기가 풍기도록 노력해서 말을 해야 한다.

지금은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나 좋은 대로 나에게 이로운 방

향으로 행동하면 되는 세상이 됐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과 공동체 의식은 찾아보기 힘들고 남이 야 어찌되든 이기적인 개인주의로만 달려가는 것 같다.

각각 다른 개인의 삶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반드시 남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질서가 있어야 한다.

우리는 이런 점을 명심하고 내 방식에 맞추라고 남에게 강요하거나 지나치게 권유해서는 안 된다. 남에게 내 주장을 말하기 전에 상대방의 입장을 한번쯤 생각해 보는 여유와 행동을 가져야 한다.

사람들은 공통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많다. 사람마다 개성이 있고 개성은 동일 할 수 없기 때문에 존중돼야 하고 확실히 이루어져야 무시돼서는 안 된다.

요즘 젊은 세대들 일수록 나만 아는 이기주의가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 안타깝고 기성세대들은 이것을 못 본체 외면하고 누구도 나서서 고치려고 하지 않는 것이 더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갈 세상도 안락하고 질서 있고 정이 넘치는 세상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상대방에게 배려하는 마음과 인정으로 생활한다면 분명 밝은 사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사람의 생각은 목소리를 통해 상대방에게 전하는 것이 말이다. 생각이 들어 있지 않은 것은 목소리다. 말에는 말씨 말씀 말투가 있는데 아름다운 꽃에 향기가 있듯이 말에도 그 말에서 풍기는 향기가 있다. 말이 씨가 되게 씨를 뿌리는 사람의 말씨가 있으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말이 씨가 된다'는 어른들 말씀을 들으며 자랐다. 위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기분 좋



수사일보

http://www.susailbo.com

62033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56번길, 7 101-403

회장 황일봉	대표전화 (062)-373-6448	FAX (062)227-0084
사장 이문수	광고 (062)-373-6448	구독료 월 10,000원
발행·편집인 이기영	등록번호 광주 가69(일간)	인쇄처 (주)남도프린테크
부사장 기백관		
취재본부장 서용운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수사일보가 지역민과 함께 유익하고 알찬 지면을 만들기 위해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오피니언 면은 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마당입니다. 이웃들의 미담이나 생활 불편사항 개선점 기고 등을 보내주시면 제작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이메일 zkj0000@naver.com 전화 062-373-6448

◆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GREENFIBROOMEYE**  
**그린피브로디엠아이**

지친 현대인의 기억력 개선과 눈 건강에 동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복합 건강기능식품

기억력 개선과 눈 건강을 위한 건강 프로젝트!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